

# 국제석유가격의 단기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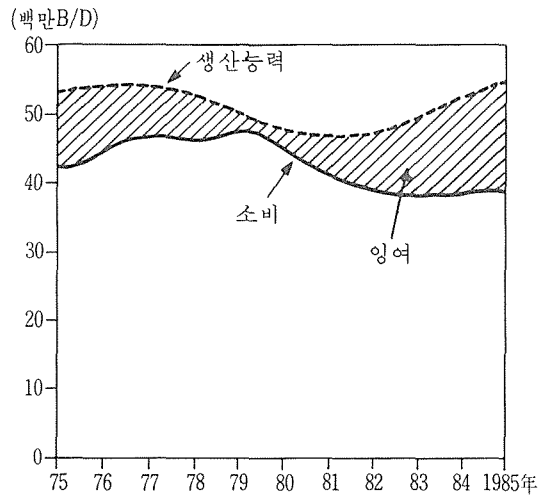
**앞**으로 중대한 군사적, 정치적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세계석유시장은 오는 90년대 초까지 현재와 같은 침체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原油수요는 늘어날 것이나 非OPEC 산유국들의 산유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0년대중에는 原油의 명목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85년 달러화 불변가격으로 오는 90년까지는 배럴당 22달러 또는 그 이하까지 하락할 것이다.

세계원유시장의 공급과잉은 지난 79년 이후 증대되어 왔으며, 81년 이후 특히 심화되고 있다. 79년 제 2차석유위기에 따른 油價폭등과 80년대 초기의 세계적 경기침체가 주요인이었으며, 81년 이후 非OPEC 산유국들이 물량공세로 석유세입감소를 막기 위해 산유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되었다. 물론 이러한 잉여생산능력의 대부분은 OPEC가 보유하고 있다. OPEC의 산유량 수준은 80년 이래 계속 하락, 85년도에는 60% 이하로 떨어졌다. 이렇게 산유량이 낮아짐에 따라 OPEC는 카르텔로서의 생존능력마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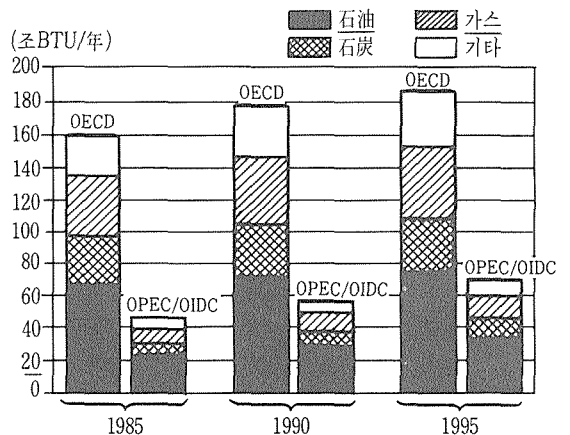
## 〈需要전망〉

위튼경제연구소(WEFA)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한 自由世界 에너지 수요신장률은 지난 85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연간 2.2%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은 자유세계를 4개국가 그룹, 즉 美國, 기타 OECD제국, OPEC, 석유수입 개도국권(OIDC) 등으로 분류, 그 그룹별 경제활동과 GDP 對 에너지 비율을 조사함으로써 얻어낸 것

〈表 - 1〉 자유세계 原油생산·소비추이



〈表 - 2〉 에너지 需要전망



이다.

이 기간중 WEFA 지수 경제성장률은 OECD가 2.9%, OPEC 및 OIDC圈이 3.9%라는 예측이며, 이 예측치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OECD가 연간 1.6%, OPEC 및 OIDC가 4.0%로 나타나는데, OECD의 수요증가율이 완만한 것은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 외에도 에너지 절약의 여지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石油수요 역시 두 그룹간에 현저하게 다른 양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非石油 에너지의 공급이 OECD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증가할 것이어서 그 결과 OECD의 石油수요는 연간 0.7% 증가에 그칠 것이며, 그것도 대부분 美國이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美國의 경우 가스공급의 제한성과 석탄연료 및 원자력 발전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계약이 石油 수요의 증대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OPEC와 OIDC는 에너지 공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천연가스의 시장점유율 증가가 두드러져 연간 3.9%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경우 石油수요는 연간 3.1%의 신장률을 나타내리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소비증가율의 격차에 따라 오는 2000년도에 가서는 자유세계 석유소비에서 OECD가 차지하는 몫이 85년도의 74%에서 66%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供給전망〉

自由世界の 石油생산능력은 증가율이 떨어지기는 해도 앞으로 15년동안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美國의 생산량 감축과 共產圈에서의 수출 감소물량은 자유세계 여타지역에서의 생산증가로 상쇄되리라는 계산이다.

OPEC 石油수요도 증가할 것이지만, 80년대 중에는 잉여능력을 감소시킬 정도는 되지 못할 것이다. 대규모의 공급붕괴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한 90년대 후반까지는 생산능력 한계까지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油價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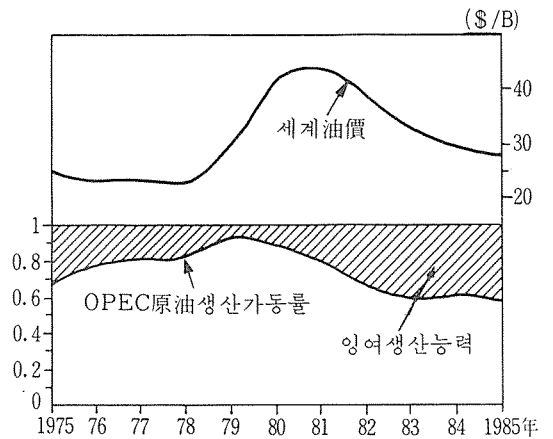
국제석유가격은 지금까지 OPEC의 행태로 말미암아 다른 상품의 가격처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

〈表 - 3〉 自由世界 석유수요 · 공급

(單位：100만B/D)

	1985	1990	1995	2000
需 要	44.1	48.5	51.8	54.6
美 國	14.8	16.4	16.7	16.5
기 타 OECD	17.8	18.2	19.1	19.5
OPEC, OIDC	11.5	13.9	16.0	18.7
供 給	44.1	48.5	51.8	54.6
O P E C	16.0	20.4	24.1	26.4
共 産 圈 수 출	1.5	1.3	0.8	0.5
기 타	22.6	23.0	22.9	23.6
N G L	3.7	4.0	4.2	4.3
비 측	0.3	(0.2)	(0.2)	(0.2)
價 格 (1985 CIF US)	27.70	22.20	24.70	2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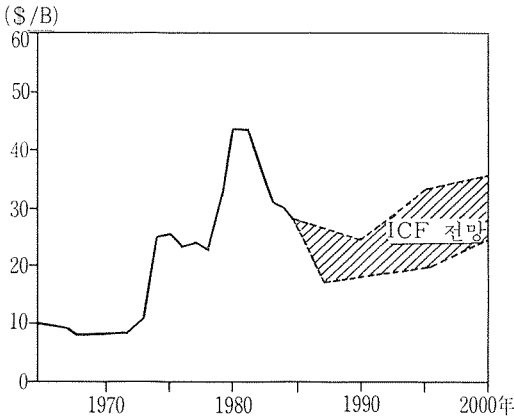
〈表 - 4〉 油價와 OPEC 원유생산 가동률



라 형성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 생산능력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자 油價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4〉는 역사적으로 油價와 OPEC의 생산능력 가동률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져왔는가를 보여준다.

지난 81년 이후 油價가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OPEC의 산유량 수준은 60%를 밑돌고 있다. 현재 가격으로는 앞으로 수년내에 OPEC 石油수요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油價는 달러불변가치로 80년대 후반기간 중 오히려 더욱 하락하리라는 전망이다.

〈表-5〉世界原油 가격추이



· 위싱턴의 유력한 컨설팅회사인 ICF는 OPEC가 단결해서 油價하락을 막아낼 수 있을 경우를 전제로 油價가 오는 90년까지 계속 떨어져 그때가서 배럴당 약 22달러선 (85불변달러가치: CIF US)이 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해서 OPEC가 시장통제력을 상실한다면 油價의 하한선은 현재 가격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ICF는 그러한 油價의 하락이 수요증가를 유발하게 될 것이지만, 그 영향은 단기적으로 미미한 규모일 것이라고 진단한다. 原油가격이 18달러 수준일 경우 美國에서는 잔사연료유와 天然가스가 시장 점유율을 놓고 석탄과 직접 경쟁을 벌일 수 있다. 물론 石炭 가격은 美國내 보일러 연료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대폭 할인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급측면에서 油價가 18달러일 경우 새로운 油田의 개발은 경제성이 없어지게 되지만, 기존유전까지 폐쇄할 정도의 가격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油價가 18달러 이하까지 떨어진다든 것도 가능한 일이다.

〈表-5〉는 지난 65년부터 84년까지의 실제 油價 변화와 85년부터 오는 2000년도까지의 ICF의 油價예측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OPEC는 90년대에 油價가 상승할 것이나,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며 오는 2000년에 가서도 85년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85년 달러화 가치기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Petroleum Economist 85年 12月號〉

□ 石油市場動向 □

## 原油現物價格 폭락 브렌트油 배럴당 19.5달러

國際 原油의 현물시세가 런던·뉴욕 등 주요 시장에서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英國의 북해산원유 가격은 지난 79년 제 2차 석유파동 이래 6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으며 美國의 뉴욕시장에서도 난방용 석유 가솔린 원유등 거의 전종목의 시세가 70년대말 이래 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유가 동향의 가장 민감한 척도역할을 하는 브렌트원유는 지난 1월 20일 유럽현물 시장에서 배럴당 약 1.5달러가 떨어져 79년 이란 회교혁명 발발후 처음으로 배럴당 20달러 아래로 곤두박질했다.

오는 4월 화물선적분 브렌트원유는 이날 배럴당 19.50달러에 거래됐으며 거래업자들은 앞으로 유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의 유가는 지난달 초에 비하면 배럴당 9달러가 떨어진 것이다.

3월 화물선적분은 배럴당 20.60달러에 거래됐다.

유럽환시에서의 파운드화시세도 유가하락에 민감하게 반응, 이날 1파운드에 1.4130달러선으로 떨어졌다.

거래업자들은 그러나 파운드화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英國 중앙은행이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이같은 브렌트원유가의 급락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생산량 증증현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美國뉴욕시장의 경우 美國시장 기준유종은 웨스트 텍사스油의 3월 인도가격이 20일 개장하자마자 지난주말의 23.53달러에서 1.03달러 하락한 22.50달러까지 떨어졌다.